

# Magnolia 2010

목련음악회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T O W A R D S   G L O B A L   E M I N E N C E

# Magnolia 2010

목련음악회

2010년 12월 21일 (화) 19:00 ~ 20:30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



## MIK 앙상블

### Programme

- 바이올린 김수빈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피아노 김정원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첼로 송영훈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객원교수)  
비올라 김상진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 아스토르 피아졸라 망각

Astor Piazzolla *Oblivion*

엔니오 모리코네 벨라 판타지아 : 가브리엘의 오보에 (영화 '미션' 삽입곡)

Ennio Morricone *Nella Fantasia: Gabriel's Oboe* (from 'The Mission' OST)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재즈모음곡 2번 中 두 번째 왈츠

Dmitri Shostakovich *The Second Waltz from Jazz Suite No.2*

### 아스토르 피아졸라 리베르탱고

Astor Piazzolla *Libertango*

## 아스토르 피아졸라 망각

Astor Piazzolla *Oblivion*

피아졸라의 망각은 누에보 탱고의 대표적인 곡으로 1984년 이탈리아 마르코 벨로치오(Marco Bellocchio)감독이 제작한 영화 '엔리코 4세'에 사용된 음악으로 아코디언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보다 애잔한 사운드를 내는 반도네온이라는 악기가 사용되었고, 특히 Gidon Kremer와 Richard Galliano 등 유명 연주자들의 연주 때문에 더욱 유명해진 피아졸라의 대표곡이다.

## 엔니오 모리코네 넬라 판타지아 : 가브리엘의 오보에 (영화 '미션' 삽입곡)

Ennio Morricone *Nella Fantasia: Gabriel's Oboe* (from 'The Mission' OST)

'미션'은 1750년경 실제로 일어났던 남미 '과라니족'에게 불어닥친 시련이 핵심 내용이다. 남미의 호전적인 '과라니족'을 여러 선교사들이 교화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이과수 폭포에 십자가에 묶인 채 내던져지는 순교를 당하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 신부(제레미 아이언스)는 목숨을 걸고 '과라니족'을 찾아가 그 유명한 'Gabriel's Oboe'를 연주하여 그들의 경계심을 풀고 믿음을 얻어 드디어 교회를 세우는데 성공한다.

##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재즈모음곡 2번 中 두 번째 왈츠

Dmitri Shostakovich *The Second Waltz from Jazz Suite No.2*

소련의 국민음악가로 불리우며 레닌 음악학교의 교수였던 쇼스타코비치(Shostakovich) 작곡의 왈츠곡이다. 그는 재즈와 왈츠의 매력을 이 곡을 통해서 모두 표현하려고 했지만 왈츠라고 하기에는 조금 느리고, 재즈라기보다는 그 웅장함이 관현악에 가깝다. 러시아 풍의 장중하면서도 쉽게 접근이 되어 흥을 돋구게 하는 대중적인 곡이다. 비엔나의 왈츠와는 색이 또 다른 형태로 매력이 넘친다. 영화 'Eyes wide Shut', '텔 미 썸딩', '번지점프를 하다' 삽입곡으로 사용되었다.

## 아스토르 피아졸라 리베르탱고

Astor Piazzolla *Libertango*

Libertango(리베르탱고)는 1974년에 발표되었고 Liberta(자유)와 Tango(탱고)를 합친 것으로 고전탱고에서 누에보 탱고로 가는 피아졸라의 변화를 상징한다. "나에게 있어서 탱고는 발보다 귀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던 피아졸라 자신의 탱고 열정을 향해 질주하던 전성기적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 어느 춤보다도 강렬하고 원초적인 몸짓인 탱고의 리듬에 슬픔, 갈망, 허무가 한데 엉켜 표현된다.

## MIK 앙상블 (MIK Ensemble),

### 세계 속에 빛나는 한국 음악계의 미래

바이올리니스트 김수빈, 피아니스트 김정원, 첼리스트 송영훈, 비올리스트 김상진. 독주와 오케스트라에 가려 침체되어 있는 국내 실내악의 활성화를 위해 솔리스트로서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연주자 4인이 당당한 자부심으로 모인 MIK 앙상블은 그 행보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실내악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2003년 호암아트홀 신년음악회에서 그 첫 모습을 드러낸 MIK 앙상블은 그 해 11월 도호나니, 피아졸라 등 흔히 연주되지 않는 작품을 연주하며 탄탄한 기량과 호흡으로 앙상블 데뷔무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2004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과 함께 'IOPE CLASSICS 2004'로 국내 5개 도시에서 순회연주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홍콩에서도 공연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클래식 음악계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2005년 12월, MIK 앙상블은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4명의 작곡가 이루마, 정재형, 제임스 라, 김솔봉이 작곡한 5곡의 감각적인 현대음악이 수록되어 있는 음반 「MIK ENSEMBLE」을 발표하여 그 실험정신과 진지함으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수록곡 중 미국에서 천재 작곡가로 인정받는 김솔봉의 'From The Sixth Hour'는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초연되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2006년 11월에는 프랑스 작곡가 포레, 에네스코, 메시앙, 드뷔시의 고품격 정통 클래식 작품으로 클래식의 정수를 담은 두 번째 앨범을, 2009년 9월에는 슈만의 낭만주의 작품으로 세 번째 앨범을 발표하였다. 2006년, 2008년, 2009년 MIK 앙상블 공연을 이어나가며 대한민국 클래식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각자 한국과 미국, 유럽에서 정상급 아티스트로 화려한 활동을 하는 가운데서도 건강하고 유쾌한 우정을 바탕으로 진지한 음악적 교감을 나누는 그들은 서로 존경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MIK 앙상블의 힘이라 말한다. 탁월한 기량의 솔리스트 4인이 모여 각자의 개성을 충분히 발현하면서도 완벽한 호흡으로 작은 오케스트라와 같은 조화를 추구하는 MIK 앙상블은 그들만의 음악세계를 탄탄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음악에 대한 순수하면서도 끊임없는 열정으로 MIK 앙상블이라는 이름 아래 진지한 도전을 하고 있는 네 명의 젊은 음악인. 이들이 바로 세계 속에 빛나는 한국 음악계의 미래이다.



### 바이올리니스트 김수빈

미국의 빌보드 클래식 차트 9위에 오르며 주목받은 데뷔 앨범 '파가니니 24개의 카프리스' 에서 보이는 폭발적인 연주력의 바이올리니스트 김수빈은 커티스 음악원과 클리블랜드 음악원을 졸업했다. 1996년 파가니니 콩쿠르 우승을 시작으로 헨릭 셰링 재단 커리어상(1996), 에이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상(1998)을 수상하기도 한 김수빈은 현재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의 인터내셔널 스칼라(International Scholar)로 재직 중이다.



### 피아니스트 김정원

영화 '호로비츠를 위하여'에 특별출연하여 라스트신에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며 대중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긴 김정원은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꼽힌다. 오스트리아의 빈 국립대학 음악대학과 프랑스 파리 고등국립음악원을 졸업했으며 각종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다수의 우승 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그는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 첼리스트 송영훈

송영훈은 세계적인 첼리스트로서 높은 인기를 누리며 수많은 초청 연주를 갖고 있고, 그의 연주는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 핀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동 등 세계 각지에서 격찬을 받고 있다. 9세에 서울시향과 탈로 협주곡 협연으로 데뷔한 그는 2002년에 헬싱키에서 열린 국제 파올로 첼로 콩쿠르에서 입상하였다. 현재 그는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 비올리스트 김상진

동아 콩쿠르 역사상 최초의 비올라 우승자로 음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김상진은 독일 쾰른 국립 음대와 미국의 줄리어드 음대에서 수학한 후 그간 미국, 독일, 프랑스, 체코 등 전 세계 40개국 80여개의 주요 도시와 페스티벌에서 연주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비올리스트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김상진은 현재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 지라니 어린이 합창단

Programme

장갈레와 모세스 오미노(편곡)

*Zangalewa* Arr. Moses Omino

잠보 잭, 모세스(편곡)

*Jambo* Arr. Jack & Moses

‘아빠, 힘내세요’

지휘 신성문

반주 오수연

합창단원

Simon Kiigi, Derick Otieno, Martin Otieno, Michael Otieno, Regan Onyango, Calvin Omondi, Albert Odour, Simon Peter, Joseph Ogweno, Gordon Onyango, Haron Onyango, Braiton Bwana, Herine Taka, Agnes Atieno, Marion Awiti, Grace Wambui, Matilda Auma, Ruth Wanja, Seline Atieno, Putity Wanjiru, Catherine Ojack, Esther Mumbi, Susan Auma, Vivian Atieno, Winnie Auma, Winnie Achieng, Juliet Akoth, Esther Waitherero, Hellen Achieng, Herine Atieno, Alice Kakwasi, Pauline Apondi, Rosemary Muthoni, Mary Snaida, Tavita Kerigo, Emmaculate Adhiambo, Bysence Akiny, Sharon Akoth, Yvone Achieng, Viena Adhiambo



## 장갈레와 모세스 오미노(편곡)

*Zangalewa* Arr. Moses Omino

광족의 언어로 작곡된 이 노래는 처음에 카메룬의 'Golden Sounds Band'에 의해서 불려졌다. 제대군인들로 구성된 이 밴드는 군대의 뚱뚱하고 탐욕스러우며 오만한 상관을 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장갈레와를 불렀다.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즉시 갖기를 원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더 많은 노동을 하기를 원하는 권력자를 조롱하는 내용의 노래이다.

## 잠보 잭, 모세스(편곡)

*Jambo* Arr. Jack & Moses

잠보는 스와힐리어로 '안녕'이라는 뜻으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보통 '잠보'라고 인사한다. 스와힐리어는 각자의 언어를 사용하는 42개 부족으로 구성된 케냐의 공식 언어이다.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정중한 표현으로 "Jambo Bwana" (안녕하세요, ~씨)가 있다. 이 노래는 만남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기에는 "Teddy Kalanda"가 이끄는 "Them Mushroom" 밴드가 불렀다. 관광객 같은 손님을 환영하기 위해 부르는 노래이다.

## 지라니 어린이 합창단

Jirani Children's Choir

케냐는 세계 10대 불평등 국가 중 하나로 세계 최대 규모의 슬럼가가 3곳이나 형성될 정도로 주민들의 빈부격차가 심각하다. 특히 단도라 지역의 고로고초는 쓰레기장으로 둘러싸인 열악한 마을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삶을 살고있다. 2005년 12월, 구호활동을 위해 이곳을 찾았던 한 한국인 목사는 이들의 힘겨운 삶을 바라보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씨앗을 남겨주기 위해 합창단을 조직하게 되었다. 노래가 아이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인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확신으로 한국인 목사는 2006년 8월 고로고초 각지에서 모인 80여명의 아이들과 '지라니 어린이 합창단'을 세웠다. '도, 레, 미'도 모르던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행복을 느끼게 되었고, 세상을 알게 된 것이다. '지라니 어린이 합창단'은 케냐의 쓰레기 마을에서 시작되었지만, 안타까운 배경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목소리와 노래만으로 편견의 눈과 귀를 깨우치고, 영혼까지 위로하는 합창단이 될 것이다.